

다산포럼

보수의 탈선-브렉시트



고 세 훈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의 이념, 이해관계, 강조점에 따라 변해 왔다. 이번 소동에서 잔류 운동의 선봉에 섰던 캐머런 수상은 원래 유럽회의론자였고, 그와 각을 세우며 탈퇴 운동을 주도했던 B.존슨 전 런던시장은 그 직전만 해도 EU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강변하던 잔류파였으며, 노동당수 J.코빈은 좌파로서 개인적 소신과 잔류라는 당론 사이에서 시종 갈팡질팡했다.

진보자들이 대체로 잔류 쪽이었던 데 반해, 보수지들의 입장은 뒤죽박죽이었다. 예컨대 '타임스'(The Times)는 잔류를 지지했지만, 자매지 '선데이 타임스'(The Sunday Times)와 발행부수 최대 대중지 '선'(The Sun)은 줄곧 탈퇴 편에 섰다. 이 신문들은 모두 언론재벌 루퍼트 매덕 소유자. 사사건건 대립하던 자본과 노동의 두 정상 조직인 '영국산업연맹'(CBI)과 '노동조합의'(TUC)가 한목소리로 잔류를 지지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실정기 이러한, 탈퇴파 잔류파를 두고 옳고 그름을 원론적으로 따지는 일은 부질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소동이 유례없는 감정적 대립을 동반하며 보수당의 총선 승리에 뒤이어 곧바로 부각된 맥락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년 총선에서, 캐머런의 성급한 레퍼런던 공약에도 브렉시트 문제는 주된 선거 쟁점이 아니었다) 기왕에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대세를 장악하던 마당에, 과격파 보수주의자들의 (탈퇴 위한) 선동이 마침내 먹혀들어 간 것은 영국

보수주의의 탈선과 더불어 그것이 지닌 파급력을 또렷이 보여준다.

원래 보수주의에는 중세에 대한 향수가 그득 담겨있다. (보수주의가 종종 반이데올로기로 불리는 이유이다.) 산업혁명의 폐해가 본격화되던 19세기 초중반 무렵,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적 시장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제였거니와, 그것은 순진하게도 중세적 질서, 곧 신분의 엄연한 불평등을 전제하면서도 기능에 따른 보상이(숙명적으로) 부여되는 신적·유기적 공동체로의 귀환을 희구했다. 그 세계에서 공동체적 질서를 위해 재산권(행사의) 자유는 일정하게 제약될 필요가 있었으니, 상층 계급의 책무 곧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적어도 규범적 수준에서는, 교부(敎父)와 성직자들의 수많은 저술과 설교를 통해 간단없이 주창되었었다.

보수주의이론의 창시자인 E.버크 이후 영국 보수주의 정신을 저술과 정치를 통해 가장 모범적으로 구현했던 이는 B.디즈레일리다. 그는 일종의 도덕적 봉건주의의 공 평등주의적이지는 않지만 금권주의적이지도 않은 사회를 꿈꿨던, 세습적 특권을 옹호하면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감각에 투철했던 정치인이었다. 19세기 중반의 레퍼런던 공약에도 브렉시트 문제는 2차대전 종전 후 보수당이 노동당과 번갈아 집권하며 일구낸 복지국가적 합의는 모두 이런 정신이 보수당 정치의 기조로서 면면히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전후 합의정치의 지형을 완전히 갈아엎은 인물이 보수당의 대저 수상이다. 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영국 정치는 대저주이라는 또 하나의 합의 위에서 전개됐으니, 그것은 파괴력에서 대공황을 능가했다는 최근의 금융 위기도 감히 흔들지 못한 난공불락의 위상을 군했다. 가령 소위 '제3의 길'을 주창하며 18년 보수당 집권을 종식시켰던 T.블레어의 노동당은 대저의 민영화, 반노조, 탈규제 등 신자유주의 입법을 거의 수정 없이 계승했거니와, '우리의 가장 큰 성과는 블레어'라는 대저의 공언은 정치적 수사를 넘은 하나의 선언이었다.

영국이 신자유주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한 지 40년. 전통적 보수의 가장 큰 미덕인 수용과 포용, 곧 선한 부분은 점차 사라지고 악한 요소는 갈수록 극악해졌다. 무릇 강자는 차이를 명백히 한 후라야 약자에게 친밀감을 보인다. 그러나 그것도 서로 섞여 있을 때 얘기다. 계급들이 지역·문화적으로 아예 격리되면 친밀성마저 불발요하다.

불평등은 더 노골화되고, 피해자(이주민, 복지수급자, 하층계급)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비난 전가의 정치' 혹은 '희생양의 정치'가 특색한다. 이것이 영국의 신흥(新興)보수가, '노동계급의 악마화'(Chav) 담론이 범람하는 가운데, 잉글랜드북부 노동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내며 브렉시트 소동을 도발했던 맥락이다.

정촌 특·특

여행을 위한 삶



김 태 진
동네줌인 대표

만저 내 삶에서의 여행은 어땠을까? 난 여행자로 살아가기 시작했는지 얼마 되지 않았다. 굳이 단어를 붙이자면 '초보 여행자'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학창시절에 기껏 여행이라고 다녀본 건 수학여행 정도였다. 대학생 때도 각종 핑계로 여행을 떠나지 못했다. 회사 워크샵을 통해 제주도도 처음 가봤을 정도였다.

그랬던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여행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였다. 바로 '커피트럭'을 만들어 전국일주를 한 것이다. 커피를 팔며 제주도를 비롯하여 전국을 돌며 여행을 했다. 그리고는 삶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나름 대기업을 공채로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빠른 시일에 퇴사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물론 그 속에는 회사 생활이 그럴 줄 몰랐던 이유가 컸을 것이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서 야근이 필수인 삶. 바쁜 일로써 인해 내 삶에 대해 생각할 심적 여유가 전혀 없었던 나날들. 어린 나이에 퇴사를 선택한건 지금 생각해보도 너무 잘한 일이라 생각되는 이유들이다.

혹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지 않았냐고 생각할 수 있을거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초수급자였고, 수 십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집안의 가

장이라는 책임감까지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경제적으로 부족했음은 몰라도 힘들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다.

왜 여행인가? 커피트럭을 하면서 행복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다. 대기업 사원일 때보다 노점상 장사꾼인 내 모습이 너무 만족스러웠다. 또래에 비해 많은 월급을 받는 것보다 돈을 못 벌어도 하고싶은 무언가를 하는 내가 자랑스러웠다. 무엇보다 회사원이었을 때보다 여행을 하며 지내고 있던 그때가 너무 행복했다. 더불어 좋은 추억들이 남고 좋은 사람들 또한 만나게 되었다. 그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들 중 하나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행에 빠지게 되었다. 한참 취업, 결혼, 집장만 등 사회적인 기준에 끌려다닐만한 20대 후반부터 말이다.

커피트럭으로 전국일주가 끝난 후 또 무얼 할까 고민의 시기가 있었다. 그러다 대화도중 우연찮게 워킹홀리데이 얘기가 나왔고 세계일주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해외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나. 그때 다짜고짜 세계일주를 한다고 하니 친구들조차 믿어주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난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일단 저질렀다. 한국 나이로 서른 살이 되어 처음으로 한국 땅을 떠

났다. 비행기 값도 카드로 긁고 말이다. 그렇게 나의 첫 해외여행은 세계일주가 되었다.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30개국을 여행하고 돌아오니, 내 인생에서 여행은 떼어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사람은 왜 사는걸까? 삶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기도, 사회적인 지위를 추구하기도, 사랑을 추구하기도 하는 등 각자의 행복 기준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갈수록 다양성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내 행복 기준에 집중하게 되었다.

어떤 기준으로 보면 인생은 참 단순한 것이다. 행복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난 여행할 때 행복하다. 여행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요즘의 나는 인생 자체를 하나의 긴 여행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즐기려 노력하고 있다. 오롯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말이다. 빔을 내서 청년 공간을 만들고, 이야기를 들려주러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좋아하는 사진일도 시작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인생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나만의 방식이 기준이 바탕이 된 것들이다. 여행을 떠나면 행복한가? 떠나고 싶은가? 그럼 지금 당장 떠나보는건 어떨까. 어차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인생 아닌가.

社說

조선대 파행, '한 지봉 두 총장'이 될 말인가

한 대학에 총장 두 명이 생길 판이다. 새 총장 선거 다름으로 시끄러운 조선대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게 됐다. 조선대 이사회와 대학 자치운영협의체(대자협)가 별도로 총장 선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조선대 이사회는 엇그제 신입 총장 초빙 공고를 내고 오는 18일까지 후보자 응모를 받기로 했다. 이사회는 자격 심사 후 선거인단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2명의 후보자를 선정할 방침이며 이사회와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신입 총장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하지만 교수평의회, 총동창회, 직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대학자치운영협의체도 독자적으로 총장을 뽑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던 이사회와 대자협이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한 지봉 두 총장'이라는 황당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현실이 된다면 대학 운영의

난맥상은 볼 보듯 뻔하다. 양 기구가 끝내 반복하면, 외부에 대학을 대표하고 학사 행정 전반을 책임질 총장이 두 명이 되어 사사건건 대립을 일삼게 되고, 최악의 경우 대학이 마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에서 크게 밀려 지방대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학생 수마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 문제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진다면 조선대는 극심한 침체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현 총장의 임기가 9월23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8월까지 선거를 치르지 못할 경우 총장 직무대행 체제 등 파행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단일 총장 선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대학 자율 운영은 요원해지는 만큼 이사회와 대학 각 구성원의 각성을 촉구한다.

전남 장애인 콜택시 정작 급할 땐 못 탄다니

장애인들은 밖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먼 거리를 오는 교통수단이 절실한데, 현실은 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통 약자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역시 마찬가지 실정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1·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2만5000명의 1·2급 장애인이 거주하는 전남엔 125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필요하지만 현재 운행 대수는 80대가 채 못 된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입률이다.

이처럼 장애인 콜택시가 부족하다 보니 평균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용자들 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남도 14개 시·군에 접수된 장애인 콜택시(1만5599건)의 평균 대기시간은 29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평균 대기시간 12분)에 비해 17분이나 늘어난 것이다. 대기시간이 길다는 것은 정작 급할

때는 이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와 임신부도 교통 약자로서 이용 대상이지만 장애인 콜택시 운행 대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이용할 여무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남도는 오는 2018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운행 대수를 총 153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수요에 맞게 운행 대수를 담당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적 기준에 맞추려면 당장 30억800만 원(한 대당 4000만 원)이 필요한 데다, 각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차량 운영비까지 감안하면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늘어나는 각종 복지 정책 등으로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야 이해하지만 지방 재정의 악화를 이유로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이 위협받아서 안 된다. 장애인들에게 '이동권 확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 문제 아닌가.

無 等 鼓

1992년 발표된 장편소설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는 작가 안정효 세대의 '문화사회 자서전' 또는 '문화사회사 진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영화에 탐닉한 소설 속 주인공 임병석에게 영화란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위해서 꿈꾸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정신적인 1회용 식품"이었다. 수많은 영화와 감독, 배우 이름이 줄줄이 등장하는 소설을 읽다 보면 독자의 학창 시절 경험과 자연스레 어울리며 이야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

내 생애 최초로 본 영화가 정확하게 무엇이었지 기억나지 않는

영화 '벤티'

아마도 초등 3학년이었던 1974년 '유관순'이나 '아빠하고 나하고'였지 않았나 생각된다. 반면 중·고교 시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고 단체 관광을 했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나 '벤티' '십계' 등은 또렷하게 떠오른다.

학창 시절 단체 관람했던 영화 '벤티'(감독: 윌리엄 와일러)를 지난 10일 광주극장에서 다시 봤다. 1959년 제작돼 국내에서 1962년 첫 상영된 이후 일곱 번째 재개봉이다. 이번 영화가 색다른 것은 '디지털 리마스터링'(보정

을 거쳐 화질과 음질이 크게 향상됐다는 점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지 60년 가까운 작품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필름 특유의 색깔은 선명했고, 흡입하듯이 '비도 내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70mm 와이드 화면으로 보는 전자(戰車) 97기의 경주 장면은 TV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박진감이 넘쳤고, 웅장한 스케일은 시선을 압도했다. 장장 3시간42분의 상영 시간 동안 중년의 관객들은 영화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났다. 한 50대 고교 교사는 "중학 시절 단체 관람한 영화인데, 30여 년이 흘러 같은 극장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어릴 적에 본 영화 한 편은 중년들에게 '정신적 1회용 식품'이 아니라 일상을 가는 '정신적 자양분'이 아닐까 싶다.

*81년 역사를 간직한 광주극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70mm 와이드 스크린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단관 예술전용 극장이다. 상영작은 '네이비 카페'(cafe.naver.com/cinemagwangju)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기 고

영암 월출산에서 전사하신 우리 오빠



조 귀 임
주부·광주시 남구 월산동

영암 월출산에 파견돼 적군과 대치하다가 전사하셨다. 초등학교 때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월출산에서 함께 파견근무하다 탈출한 동료 한 분이 집에 찾아 오셔서 무릎 꿇고 울면서 "혼자만 살아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개죽을 당하지 말고 함께 탈출하자고 아무리 졸라도 그럼 이 나라를 누가 지키겠냐며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렸다"고 전했다.

장남이 전사하자 엄마가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월출산을 미친 듯이 헤매셨다. 온 산을 뒤덮은 시신이 뒤엉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핏물이 골짜기를 타고 흘러 내렸더니 눈뜨고 못 볼 참상이 아닌가? 몇날 며칠 시신을 찾으려고 헤맸지만 끝내 못 찾고 결국은 흙 한 줌을 따라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경찰묘역에 모셨다.

당시 나는 어린아이여서 국립묘지에 가보진 못했다. 좀 더 크면 꼭 큰오빠를 찾아가보겠다고 다짐했건만 지방에서 서

울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다 기회가 왔다. 초등학교 교사 근무시절, 모범교사로 뽑혀 선진지 시찰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동작동 국립묘지에도 들르게 되었다. 경찰묘역에서 묘비에 새긴 '조영남' 이름을 본 순간 눈물이 울락 솟았다. 나라위해 목숨 바치신 큰오빠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민족상잔의 아픔이 밀려와서 만감이 교차했다.

우리 오빠는 결코 개죽음을 당한 게 아니다. 순고하게 희생했다. 생때같은 젊은 이들이 준비하게 드러누워서 끝없는 행렬을 이어가고 있었다. 긴 한숨이 절로 나왔다. 꽃다운 나이에 꽃봉오리를 제대로 피우지도 못한 채 피끓는 청춘을 나라위해 몸바쳐서 우리의 반만년 역사를 굳건히 지킨 것이다.

어릴 때 엄마가 밭을 매면서 흥얼흥얼한을 토해 내시던 피끓는 절규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자식을 그리워하는 절절하고 애통한 목소리가 너무 가혹하지 않은

가? 그렇게 부모님은 큰오빠를 가슴에 묻고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셨다. 자식이 부모 앞에 먼저 간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정말 못할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이 지났지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고귀한 목숨 바쳐 나라수호에 희생양이 된 호국영령들에게 우리 모두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6·25 전쟁은 남북의 이념갈등이 빚어낸 전쟁으로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의 아픔을 겪게 했다. 다시는 어린 새싹들에게 천추의 한을 남겨선 안 될 것이다.

큰아버지 아들로 임양된 친정 둘째 조카가 해마다 6월25일에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난 큰오빠의 제사를 지낸다. 전쟁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부모님과 만나 오순도순 못다한 정 나누시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란다.

오늘따라 부모님과 큰오빠가 무척 그립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지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